

## **봉오동 전투 재현, 동포와 국민이 함께 하는 81년 전 광복의 그날**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지원센터인 ‘광주  
고려인마을’ 행사 지원 및 참석 -**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인 ‘광주 고려인마을’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서 봉오동 전투 재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대표적 승리인 봉오동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후손인 고려인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공유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행사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계승해 온 고려인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2019년부터 법무부가 지정한 동포체류지원센터로서 지역 내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류·영주·국적 상담, 한국사회 적응 지원,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기반으로 동포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광주 고려인마을 '봉오동 전투 재현 행사' 보도자료

|       |                |     |     |                    |
|-------|----------------|-----|-----|--------------------|
| 담당 부서 | 법무부<br>동포체류통합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세진 (02-2110-449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원 (02-2110-4141) |



## 광주 고려인마을 광복절 봉오동전투 재현행사 '국제적 관심'

김명식 기자 입력 2026. 8. 4. 10:11

전국은 물론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까지 참가 문의  
광복절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



역사마을1번지  
**고려인마을**

광복 **81** 주년 기념

**2026 역사를 이어가는 고려인마을**

**8월 15일 토요일 10:00 ~ 15:00**  
월곡동 고려인마을 일원

**봉오동전투 재현행사 / 기념음악회**

**독립운동역사문화체험**



**홍범도장군**  
1868~1943  
“해도조선,피도조선  
이 때 이 때는  
살아 조선 죽어 조선  
조선 것일세”



**슈렁글스 체험하기**  
홍범도장군 모형을  
나만의 카탈로로  
만들어 보세요!



**태극기부채 탁본**  
부채에 태극기를  
탁본하여 감상해요!



**마트료시카 색칠하기**  
귀여운 마트료시카를  
예쁘게 색칠해요!



**그림동화 고려아리랑**  
동화로 읽는  
고려인들의 삶과 이야기!



**고려아리랑 원화 전시 및 사진회**  
원화 전시와 작가  
사진회를 함께 즐겨요!

**주최·주관** |  **법무부지정 동포체육지원센터** |  **고려인마을**

**후원** |  **법무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산구**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열리는 봉오동전투 재현행사가 국내를 넘어 해외 고려인동포 사회의 관심까지 끌며 국제적인 역사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4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오는 15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고려인마을이 공동 개최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주민과 고려인동포, 전국 학생, 관광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광산구 월곡2동 주민과 고려인마을 동포들은 물론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고려인동포 사회에서도 방문 문의가 잇따르는 등 국제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행사의 대표 프로그램인 봉오동전투 재현은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의 봉오동대첩을 물총 축제 형식으로 재현한 고려인마을의 대표 역사문화 콘텐츠다. 참가자들은 독립군과 일본군으로 나뉘어 전투를 체험하며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행사장에서는 고려인 선조들의 연해주 이주와 항일독립운동, 1937년 강제이주, 중앙아시아 정착, 대한민국 귀환 과정을 소개하는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세계적인 고려인 화가 문빅토르의 그림동화 '고려아리랑' 원화전과 광복절 기념음악회도 함께 열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봉오동전투 재현행사가 국내외 고려인동포와 시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며 "광복의 의미와 고려인 선조들의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 역사문화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한 고려인동포 7천여 명이 생활하는 국내 최대 고려인 정착마을로, 역사·문화·교육·관광을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